

# 2024.07.01.(월) 증권사리포트

고려아연

금속 가격과 환율의 동행성 바뀔수 있어

[출처] 유안타증권 이현수 애널리스트

2Q24(E): 영업이익 1,960억원 추정 (yoy +26%, qoq +7%)

1) 별도: 2Q 영업이익 1,970억원(yoy +20%, qoq +3%) 전망. 3~5월 LME 아연 및 연, 은 평균가격은 각각 2,720달러/톤, 2,136달러/톤, 27.2달러/온스 기록. 전분기(12~2월)비 아연 +11%, 연 +3%, 은 +17% 상승. 1Q 대비 2Q 원화 약세가 진행되며 환율 역시 실적에 우호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계절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2Q 아연 및 연 판매량은 전분기비 증가해야 하지만 예년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던 1Q 판매량과 4~5월 급등한 금속 가격에 대한 부담 등에 따라 아연과 연 모두 1Q 대비 판매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전년대비 낮아진 아연 및 연 TC는 2Q부터 매출원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 2) 연결: SMC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분기비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되나 원재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틸사이클 및 캠코 등은 영업이익 감소 추정.

수급이 주는 영향 다소 약화될 것

1~5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아연을 비롯한 주요 비철금속 가격 상승. 이는 수급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 특히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 ILZSG에 따르면 1~4월 세계 아연 광산 생산량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반면, 금속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0.1%, +2.5% 증가. '23년에 이어 광산 생산량 감소 이어져. 하지만 하반기에는 일부 광산 생산 재개 및 신규 광산 가동이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 대비 정광 공급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자회사 실적 개선 속 제련업 영업 환경은 주춤

1H24는 아연 BM TC 하락에도 금속가격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며 실적에 긍정적 영향 미쳐. 하반기는 SMC 등 일부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나 제련업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상반기와 같은 영업 환경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은 긍정적이나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율 측면에서는 '23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

	2Q24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2,487	0.7	4.7	2,744	-9.4
영업이익	196	26.2	6.5	227	-13.5
세전계속사업이익	222	30.6	45.4	234	-4.9
지배순이익	160	32.9	49.9	163	-1.6
영업이익률 (%)	7.9	+1.6 %pt	+0.1 %pt	8.3	-0.4 %pt
지배순이익률 (%)	6.4	+1.5 %pt	+1.9 %pt	5.9	+0.5 %pt

자료: 유안타증권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11,219	9,705	10,055	10,461
영업이익	919	660	789	834
지배순이익	781	527	608	643
PER	14.0	19.6	17.7	16.7
PBR	1.2	1.1	1.1	1.1
EV/EBITDA	8.0	9.7	9.3	8.5
ROE	9.4	5.7	6.4	6.6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1] 달러 인덱스와 LME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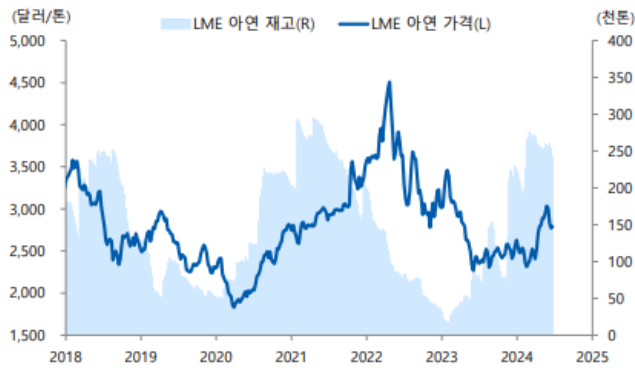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2024년 6월 21일 기준

[그림-2] 귀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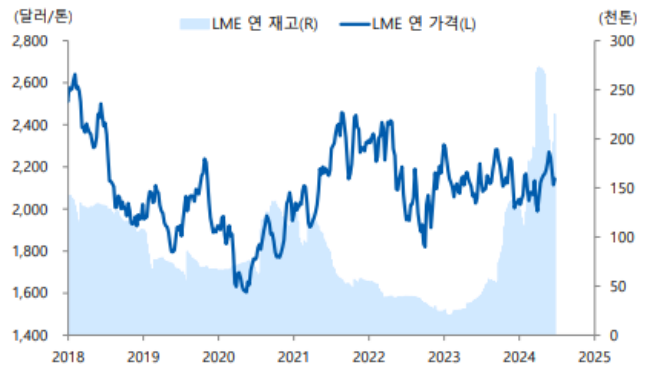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2024년 6월 21일 기준

[그림-3] LME 아연 가격 및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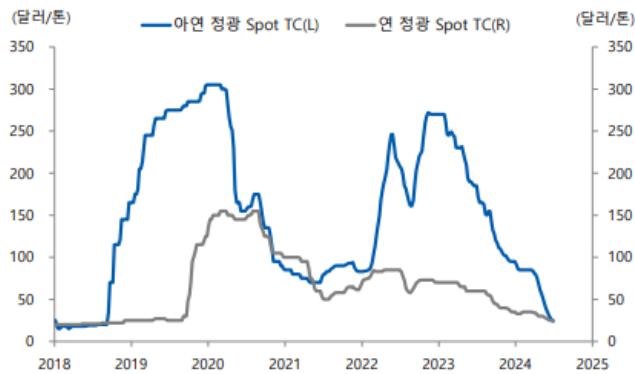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2024년 6월 21일 기준

[그림-4] LME 연 가격 및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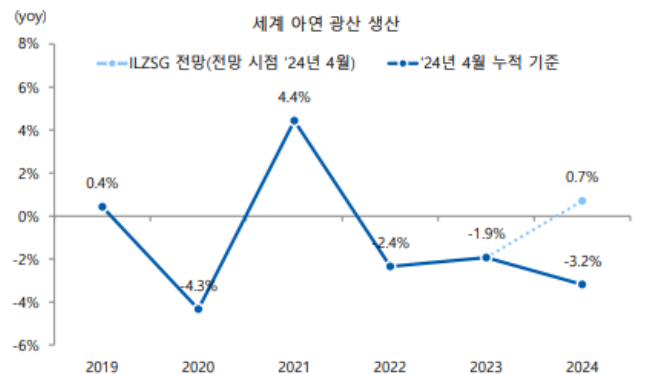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2024년 6월 21일 기준

[그림-5] 중국 수입 아연정광 및 연정광 Spot 제련수료



자료: Bloomberg, 주: 2024년 6월 21일 기준

[그림-6] 세계 아연 광산 생산



자료: ILZSG



오리온

전사 매출 성장률 반등 및 수익 구조 개선 전망

[출처] 키움증권 박상준 애널리스트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부합 전망

오리온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236억원(+10% YoY)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경기 회복 지연과 중국 영업 체제 전환에 따른 매출 공백 영향으로 매출 성장률은 +2%로 둔화되는 흐름이다. 다만, 중국 할인점 등 주요 채널의 수익 구조 개선(간접 영업으로 전환 등), 전사 원부재료 단가 하락 효과 등에 힘입어,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1.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사 매출 성장률 반등 및 수익 구조 개선 전망**

중국은 할인점 경로의 간접 판매 전환 등이 완료되면서, 3분기부터 전 채널의 영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영업 정상화 이후, 증량 제품 판매강화, 젤리/파이 등 기존 제품의 익스텐션을 통해 판매량 성장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게다가, 위안화 환율도 전년동기 대비 강세 구간에 진입(원화 대비 강세)했기 때문에, 중국법인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률이 반등하고, 수익 구조(판매수수료 축소)도 과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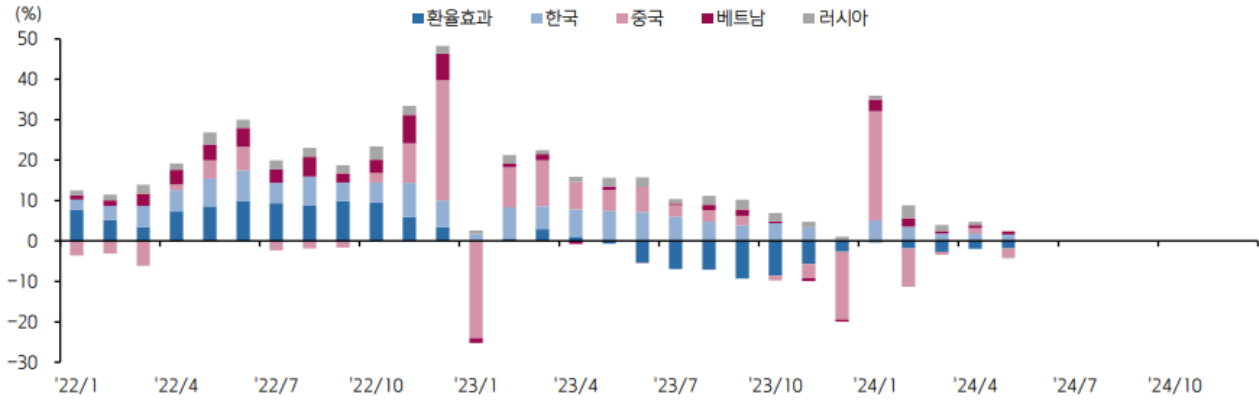
계절적으로도 6월을 저점으로 매출이 MoM으로 반등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경절 성수기와 광군제 행사 시즌을 앞두고, 중국법인의 판매량 확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42,000원 유지**

오리온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42,000원을 유지한다. 동사는 중국법인의 채널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3분기부터 매출 성장률과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FW12M PER도 8.6배 수준으로 음식료 주요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 폭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주가 조정을 비중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억원, IFRS **)				
매출액	2,873.2	2,912.4	3,128.5	3,324.1
영업이익	466.7	492.4	549.2	590.2
EBITDA	628.3	649.6	720.1	772.0
세전이익	486.7	520.0	574.6	616.0
순이익	398.3	385.0	418.7	446.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392.4	376.6	406.1	437.5
EPS(원)	9,924	9,527	10,271	11,066
증감률(%YoY)	52.2	-4.0	7.8	7.7
PER(배)	12.9	12.2	8.9	8.3
PBR(배)	1.98	1.60	1.13	1.01
EV/EBITDA(배)	6.8	5.5	4.0	3.2
영업이익률(%)	16.2	16.9	17.6	17.8
ROE(%)	16.5	13.9	13.4	12.9
순차입금비율(%)	-33.2	-37.4	-26.3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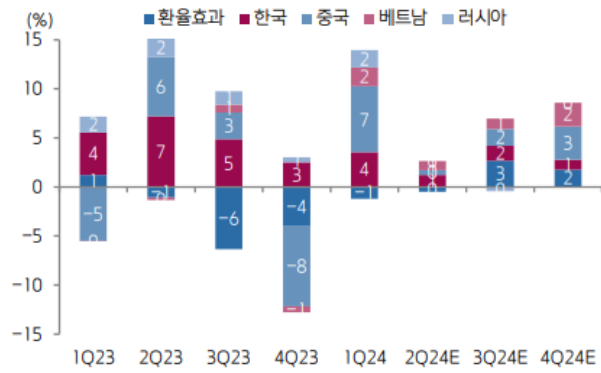
### 오리온 월별 매출 성장률 기여도 추이



자료: 오리온,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

주: 1) 환율효과는 연결기준 매출 성장률에서 주요 4개국의 현지 통화 기준 매출 성장 기여도를 차감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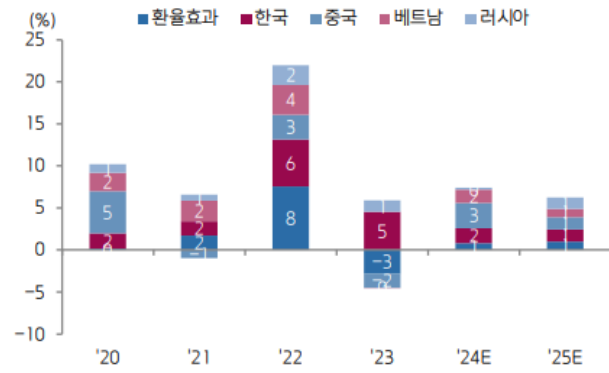
### 오리온 분기별 매출 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



자료: 오리온,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

주: 1) 환율효과는 연결기준 매출 성장률에서 주요 4개국의 현지 통화 기준 매출 성장 기여도를 차감한 수치임

### 오리온 연도별 매출 성장률 기여도 추이 및 전망



자료: 오리온,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

주: 1) 환율효과는 연결기준 매출 성장률에서 주요 4개국의 현지 통화 기준 매출 성장 기여도를 차감한 수치임



풀무원

준비된 K 푸드 강자

[출처] 유안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

하반기 해외 법인 턴어라운드

하반기 미국, 일본, 중국의 해외 법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 온 해외 법인 성과가 올해 하반기 흑자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두부와 아시안 푸드의 매출 성장과 원가 절감을 통해 실적이 향상되며, 일본은 두부바 매출 비중 확대와 주력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은 유통 채널 재개와 생산 능력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해외 생산 능력 강화와 물류 효율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인 결과로, 2024년에는 해외 법인의 첫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

### 내년 육상 양식 김 상용화 기대

동사는 2024년 3월 국내 최초로 김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허가를 취득했다. 4월에는 육상 양식한 김을 제품화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건 식당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조미김, 스낵 등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육상 양식은 해상 양식에 비해 1) 갯병 감염을 방지하고, 2)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00배 높으며, 3) 계절에 상관없이 생산할 수 있어 효율성이 뛰어나다. 한국은 전 세계 김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K-푸드 열풍과 함께 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 육상 방식의 높은 효율성과 생산량을 감안할 때, 향후 김 수출 확대도 기대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라면' 7월부터 美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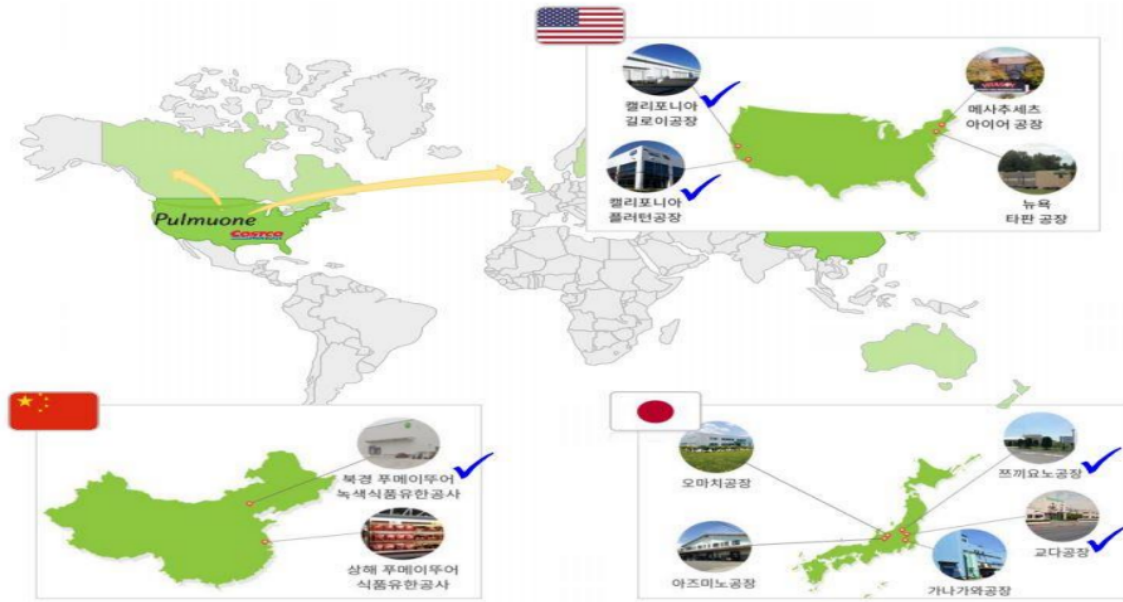
7월부터 신제품 '서울라면'을 미국 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라면이 K-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 수출은 동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슬람권 소비자를 위해 할랄 인증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이후에는 전 세계로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라면은 동사와 서울시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출시 5개월 만에 100만 봉(약 25만 번들)을 판매하며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F
매출액	25,189	28,383	29,935	31,492
영업이익	385	263	620	825
지배순이익	134	-186	195	435
PER	57.5	N/A	20.7	12.5
PBR	1.6	1.4	1.2	1.4
EV/EBITDA	9.1	9.2	7.4	7.3
ROE	2.9	-4.2	5.3	12.5

사업부문 매출 비중



자료: 풀무원, 지주 제외, 1Q24 기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법인 유통채널 및 품목



자료: 풀무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맥스트  
 플랫폼 고도화 중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 AR원천기술을 보유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맥스트는 AR 원천 기술의 AR SDK, SLAM, VPS 등 공간 컴퓨팅 기술을 보유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2010년 설립되어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동사는 보유한 원천 및 핵심 기술들을 접목하여 수요자(개발자 및 서비스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편의성과 기술력을 부각시킨 'MAXWORK' (산업용 AR 솔루션), 'MAXVERSE' (XR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MASXT AR SDK' (3차원 공간을 생성하여 VR과 AR 디바이스를 통해 감상) 등의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2년간 개발과 테스트를 마친 'TLONA' (현실 공간을 3D 가상공간 재현)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 비중은 산업용 AR솔루션 80.8%, AR 개발 플랫폼 10.1%, 도서콘텐츠 플랫폼 8.8%, 기타 0.3%이다.

## 플랫폼 고도화 및 사업 다각화 지속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 다각화를 지속 중이다. 2023년 9월 업그레이드된 AR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MAXST AR SDK 6. 1.0'을 출시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XR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용 개방 플랫폼 'MAXVERSE' 출시했다. 올해 8월에는 베타테스트를 거쳐 더욱 완성도를 높인 'TLONA' 출시를 통해 공간 컴퓨팅 방식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판매, 제휴 광고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적용하여 수익성 제고 기회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스마트팩토리 컨실팅 및 MES(제조실행시스템) 구축 기업 아이엘포유 인수를 통해 MES 기술과 동사의 MAXWORK 기술을 접목 시켜 스마트팩토리 설비 점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팩토리 AR솔루션 사업에 2025년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적으로 2024년 1월 '니즈게임즈' 인수를 통해 VR/스마트글라스 기반 게임 개발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점진적인 외형 성장 전망

2024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08.3억원(+1,545.8%, YoY), 영업이익 -55.7억원(적자지속, YoY)을 기록했다. 매출액 성장은 2024년 1월 인수한 아이엘포유 매출 인식이 주요인이지만, 수익성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출시를 앞둔 디지털 트윈 서비스 플랫폼 '와이더스(Widearth)'와 8월 'TLONA'의 출시로 신규 매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회사 아이엘포유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출이 예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클래스 핵심 기술인 위치추적, 컴퓨터 비전, 공간 맵핑 등 기존 출시된 AR 기기의 기술적 보완 및 가격 경쟁력을 개선한 보급형 AR 기기 출시도 예정되어 있어 외형에 대한 볼륨은 점진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0	0	3	2
영업이익	0	0	(11)	(17)
세전이익	0	0	(15)	(13)
순이익	0	0	(15)	(13)
EPS	0	0	(787)	(676)
증감율	N/A	N/A	N/A	적지
PER	0.0	0.0	(15.4)	(10.4)
PBR	0.0	0.0	6.2	5.4
EV/EBITDA	0.0	0.0	0.0	0.0
ROE	0.0	0.0	(39.0)	(51.8)
BPS	0	0	1,953	1,304
DPS	0	0	0	0





## 팜트론

반도체가 이끌 외형 성장 기대

[출처] 하나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차세대 검사장비 개발 및 제조 업체

팜트론은 2002년 설립된 머신비전 기술 기반 외관 검사장비 업체다. 주요 장비는 1) SMT, 2) 반도체, 3) 차전지용 검사장비이다. 매출 약 70~80% 비중이 SMT 고객사 향으로 공급되고 있다. 동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인 ZEUS(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를 포함하여 패키지 검사장비 APOLLON 및 메모리 모듈 검사장비 MARS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였다. 향후 SMT 장비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반도체 및 2차전지 검사장비 고객사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 2024년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SMT 83.0%, 반도체 16.8%, 2차전지 0.2%이다.

SMT에서 반도체 및 2차전지 고객사 확장 지속 전망

- ①SMT: SMT는 표면실장기술을 뜻하며 기판 위에 저항기, 커패시터, 인덕터 등의 부품을 실장하는 PCB 제조의 핵심 공정이다. 팜트론은 납 도포상태(SPI), 부품 실장상태(MOI), 장착부품(AOI) 등의 검사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 SMT 검사장비는 모바일 산업 위주로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최근에는 자동차 전장 및 스마트팩토리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동사의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다.
- ②반도체: 와이어 본딩 검사장비인 ZEUS가 동사 반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제품이였으나, APOLLON 및 MARS 등 장비 라인업이 확대되며 고객사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 국내외 고객사 퀵이 진행 중으로, 내년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웨이퍼 검사장비인 8800WI 또한 연내 퀵 완료가 기대되며, 내년 장비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작년 반도체 검사장비 매출 비중 약 15% 수준으로 파악되나, 내년 신규 장비 공급 및 전방 고객사패키징 투자 확대와 맞물려 관련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SMT 장비대비 높은 판가 기반으로 제품 믹스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 ③2차전지: 리드탭의 표면결함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로 빠른 검사속도가 장점이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업체향 퀵 테스트 및 초도 공급이 진행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된다.

2024년 매출액 879억원, 영업이익 98억원 전망

2024년 실적은 매출액 879억원(+19.2%, YoY), 영업이익 98억원(+20.9%, YoY)으로 전망한다. 1) SMT 검사장비의 꾸준한 매출이 뒷받침 하는 가운데, 2)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확대와, 3) 2차전지 리드탭 검사장비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을 전망한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44	58	61	74
영업이익	0	4	6	8
세전이익	0	4	6	8
순이익	0	5	5	7
EPS	13	236	271	334
증감율	N/A	1,715.4	14.8	23.2
PER	0.0	0.0	10.3	26.8
PBR	0.0	0.0	2.3	5.9
EV/EBITDA	0.0	0.0	8.1	10.2
ROE	4.1	39.4	20.1	22.0
BPS	326	600	1,225	1,522
DPS	0	0	0	0





## 유진테크놀로지

2차전지 셀 가동률만 회복된다면

[출처] NH투자증권 손세훈 애널리스트

### 노칭 공정 핵심 부품인 노칭 금형 제조

유진테크놀로지는 노칭 공정에서 전극판을 셀 형태로 자르는 노칭 금형을 생산하는 기업. 노칭 금형을 포함한 정밀 금형 매출 비중이 2024년 1분기 기준 76.4%에 달함

노칭 금형은 내구성 유지를 위해 초경합금 및 열처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해야 하고, 정밀 가공 기술로 적용 필요. 이는 국내 노칭 금형을 생산하는 회사가 동사를 포함하여 두 곳 밖에 없는 이유. 동사는 노칭 금형을 삼성SDI에 독점적으로 공급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 점유율은 60%인 것으로 파악  
노칭 금형은 커팅을 반복하므로 마모되기 때문에 연마와 수리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모성 제품. 연마와 수리도 동사 실적에 기여

### 리드탭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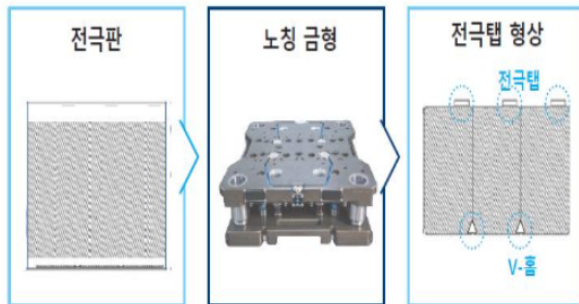
리드탭 CAPA 증설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월 100만 tp트에서 2025년말 200만 세트 증설 예정. 동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가 아닌, 2차전지 신규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승인 진행 중  
동사의 제품은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고객사인 2차전지 업체의 가동률과 연관. 현재 2차전지 산업 침체로 1024년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객사 가동률 회복 시 주목 필요

	2021	2022	2023	2024E
매출액	34.6	39.8	47.5	43.0
증감률	11.6	15.2	19.3	-9.5
영업이익	3.0	2.4	6.4	3.0
증감률	흑전	-20.8	167.5	-52.9
영업이익률	8.7	6.0	13.4	7.0
(지배지분)순이익	2.8	1.2	-1.8	3.0
EPS	689	285	-326	428
증감률	흑전	-58.6	적전	흑전
PER	0.0	0.0	N/A	23.3
PBR	0.0	0.0	1.8	1.4
EV/EBITDA	4.0	4.3	8.9	10.4
ROE	79.0	10.2	-5.5	6.0
부채비율	821.9	191.8	47.3	50.9
순차입금	17.2	17.8	-10.7	-17.5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 1. 노칭 금형의 역할

양극(음극) 활물질이 코팅된 전극판에 탭 형상을 타발하는 노칭 머신 핵심 부품



자료: 유진테크놀로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2. 비즈니스 모델



자료: 유진테크놀로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농심  
 방향성에 투자하자  
 [출처] NH투자증권 주영훈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61만원으로 상향

농심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61만원으로 기존 대비 +9% 상향. 목표주가는 12M Fwd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PER 20배를 적용하여 산출. 동사의 해외 법인 성과는 미국 실적 기저 부담 및 중국 유통망 변경 영향으로 1분기까지 주춤했으나 본격적인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유럽 중심의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늘어나는 국내외 라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물류 센터 설립을 발표(6/12)한 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대 요인

제조원가율 상승 부담은 2분기까지는 지속되겠지만 3분기부터는 완화되며 영업이익 증가 추세로의 전환 가능할 것. 최근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뒤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지만 K-Food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또한 기대되는 만큼 재차 상승 가능할 것으로 기대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초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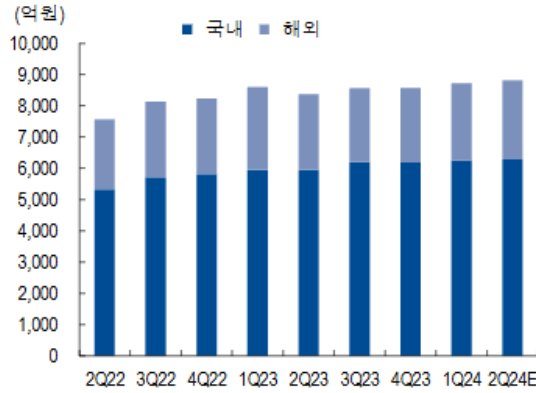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806억원(+5% y-y), 518억원(-4% y-y)으로 전망. 국내(별도) 매출액은 6,289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 추정.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높은 라면의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출 물량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중 해외 법인 매출액은 2,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 전망. 1분기까지 매출 감소 추세를 보였던 미주 법인과 중국 법인 성장률(y-y)이 각각 +4%, +7%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며 하반기에는 한층 더 개선된 흐름을 기대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3,411	3,566	3,759	3,945
증감률	9.0	4.6	5.4	5.0
영업이익	212	226	253	276
증감률	89.1	6.6	11.8	9.3
영업이익률	6.2	6.3	6.7	7.0
(지배지분)순이익	172	183	203	222
EPS	28,261	30,087	33,448	36,494
증감률	48.0	6.5	11.2	9.1
PER	14.4	16.4	14.7	13.5
PBR	1.0	1.2	1.1	1.0
EV/EBITDA	5.6	6.7	6.1	5.6
ROE	7.3	7.3	7.6	7.8
부채비율	32.5	31.5	30.4	29.2
순차입금	-637	-643	-677	-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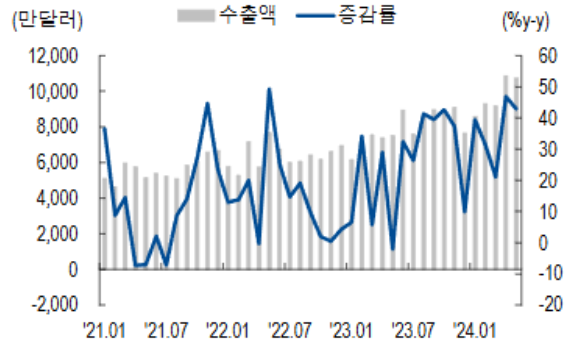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농심 국내 및 해외 매출 추이



자료: 농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한국의 월별 라면 수출 데이터



주: HS code: 1902301010

자료: TRAS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489,000 ▲ 2,500 +0.51% 19,222 46.39% 0.32% 9,386백만 호가 489,500 489,000 시 491,000 고 496,000 저 481,000 매수 매도 평

